이동면 '초계 99호' 최우수 젖소 수상

9월9일 제1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최우수 젖소인 그랜드챔피언으로 선정된 '초계 99호'와 출품자인 최금표씨가 취재진을 위해 촬영장에서 자세를 잡고 있다.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축산업협동조합과 포천시 젖소검정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홀스타인 품평회가 지난 9일 포천종합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품평회에는 육성우와 초임우, 경산우 등 6부 경쟁부문에 36개 농가, 60두의 젖소가 출품돼 15개 부위를 종합 평가했다.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젖소 개량의욕을 높이고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젖소품평회 외에도 축산기자재 전시와 우유홍보캠페인, 젖소미용시범 등도 열렸다.

출품 젖소는 육성우를 1, 2, 3부로 나눠 심사했으며, 초임우를 4부, 경산우를 5부와 6부로 나눠 평가했다.

품평회를 1년동안 준비했다는 김희동 준비위원장은 "60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낙농가의 불참 및 질병 등으로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준비를 위해 젖소의 털을 깍는 것과 순치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의 단독심사를 맡고있는 한국 종축개량협회 이상기 부장은 "평가기준에 있어서 육성우와 초임우는 먹은 사료를 우유로 생산하는 능력인 예각성을 중요시 한다"며 "경산우는 유방의 외모나 우유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령별 생육상태가 적절한가"라고 강조했다.

총 6부에 걸쳐 선발된 최우수, 우수, 장려의 18두 중 주니어챔피언은 '유밀원 마티 메인스트림 182호(출품자 조성달)'이 시니어챔피언은 '해영 시릴 데이터베이스 81호(박해영)' 수상했다.

이어 황금유방 상에는 '추산 루돌프 75호(차종철)'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상인 그랜드챔피언은 이동면에서 초계목장을 운영하는 최금표씨가 출품한 '초계 99호'가 수상했다.

한편 수상젖소 중 시니어 챔피언인 '해영 시릴 데이터베이스 81호'와 '추산 루돌프 75호'는 부부가 대회에 참석, 나란히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사계절 뚜렷한 기온차, 그리고 양축가의 선진 사양관리기술 등으로 인해 포천 지역에서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 98년 이후 시가 산유 능력 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간 1만kg이상 생산하는 젖소 농가가 20호 이상이 됐다"고 밝혔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제3회 영중면민의 날 한마당 큰잔치

오는 25일 영중중학교에서

오는 25일 영중면 영중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영중면민의 날 한마당 큰잔치' 개최된다.

영중면 이성호 면장은 "면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향토애와 문화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검소하게 치르지만 역동하는 푸른 영중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체육행사, 야간에 벌어지는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로는 8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가지 행진이 벌어진다.

참가자는 거주지 및 본적지가 영중면인 자로 자격이 주어졌으며, 대회참가팀은 법정리별 6개 권역으로 나눠 치러진다.

6개권역팀은 제1팀 양문1·2리, 제2팀 양문3·4리, 제3팀 거사리 전체, 제4팀 성동리 전체, 제5팀 금주리 전체, 제6팀 영평·영송리 전체로 대회 당일 고유이름이 지어진다.

한편 체육행사는 족구, 씨름, 줄다리기 등 13개종목에 걸쳐 마을의 기량을 뽐내는 장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체육행사 후 늦은 10시까지는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 순서로 경기민요, 가수초청 등 초청공연과 면민노래자랑이 펼쳐져 주민간 화합과 친밀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 강좌'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의장 윤순옥)의 주최로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건강강좌'가 2일 포천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황수관 박사는 직접 겪은 일화를 토대로 2시간여 동안 특유의 입담을 자랑해 참석한 시민들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통·이장연합회 수련대회

가산면, 종합우승 차지

3일 포천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통.리장협의회 수련대회에서 장경섭 포천시이장협의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포천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는 3일 포천시 통·리장연합회 수련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통·리장 부부 및 기관, 단체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장경섭 포천시 통·이장연합회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모두 합심하여 성공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자"며 "통.이장은 단순히 마을만의 대표가 아니라 지역사회 대표로서 주민화합과 발전에 앞장서는 개혁의 주체가 되자"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격려사에서 "시에서 유치한 인라인대회, 열린음악회, 스포츠댄스대회 등의 큰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통.이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회선서 후 '20바퀴돌고 반환점 돌아오기', '발묶고 이어달리기', '피구', '훌라후프돌리기', '우유빨리마시기' 등 7개 종목에 걸쳐 체육행사가 펼쳐졌으며, 노래자랑 등의 행사가 이어져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우승은 가산면이 차지했고 소흘읍, 내촌면, 화현면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김형국(운암환경 대표)

포천신문 조사위원의 새 각오

언론의 대도(大道)를 당당하게 걸어온 포천신문사의 발전을 우리 다함께 기원하면서 이 지역 정론지로 더욱 각광받는 신문사로 분발하시길 기대합니다.

금번 9월 7일 포천신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포천신문사 조사위원으로 위촉받은 필자로서는 아주 각별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거워지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었습니다.지역신문사의 조사위원. 과연 무엇을 조사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조사위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필자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의문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웃을 조사 발굴하여 정의사회구현에 징표를 삼자는 것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살벌한 이 시대에 애써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입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애써 외면한 사회정의의 파수꾼 선행자들을 조사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함께 하는 사회, 사람과 사람이 진한 정을 나누는 휴머니즘의 사회를 건설하여 보자는 것입니다.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건강한 웃음이 상식이 통하는 열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반듯이 물리적 풍요와 거대한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얻은 잔잔한 즐거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탐욕을 경계하고 절제를 미덕으로 삼으며 사랑과 자비정신을 우리주변에 작은 사랑의 실천 정신으로 어질고 착하게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을 조사 발굴하여 그 덕행을 널리 알리고 포상함이 어떠하신지요?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론지 위상 더욱 높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

제12차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가 9일 오후6시30분 2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갖고 전국최고의 지역정론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양주승 포천신문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다망하심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참석하신 것은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부명예기자단과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포천신문이 언론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주부명예기자단과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을 지면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체 대표와 이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기사는 포천사회에서 큰 가치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자문위원회가 가장 먼저 발족된 시스템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희준 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정론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포천신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고 운영면에서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고문은 "포천신문이 의정부사람들에게까지 평이 좋다"며 "자문위원들이 신문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최종규 명예고문은 "신문사를 이끌어가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모두가 협력해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재창 명예고문은 "일간지보다 지역신문에 더 관심이 많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며 "보통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신문이 바로 포천신문이라며 전국에서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자리를 굳건히 확보할 때까지 자문역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조대행 부위원장은 "포천신문이 포천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포천신문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문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성 감사는 "최근 경쟁사가 자꾸 출연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포천신문이 계층별로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어떤 경쟁사가 출현하더라도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병업 위원은 "재경포천시민들이 구독료 납부를 원하고 있는데 납부안내를 해주면 좋겠다"고 밝히고 "포천시 사회봉사단체들의 활동상을 위해 지면을 많이 할애하기를 바라고 의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익(석혜승 스님)위원은 "종교인으로서 단합이나 화합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포천신문이 정론지로 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희 위원은 "동아일보 보다 포천신문을 더 기다린다"며 " 포천신문에 기고를 하면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를 받게 돼 기분이 좋다" 며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포천신문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포천신문을 위해 기고 하겠다."고 밝혔다.

조복현 위원은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하 위원은 "운영위원회등 포천신문 시스템 관련 기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완 위원은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발전하는데 집필과 기고를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노현 위원은 "늘 열심히 노력하는 포천신문에 격려를 보내며 더욱 훌륭한 신문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원 위원은 "많은 실천사항 중에 1만명 독자시대를 열기 위해 오늘 1명의 독자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나근수 위원은 "포천신문은 이제 포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와 여론을 형성하는 신문이 되었으므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독자들로 부터 계속 사랑받는 언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순옥 위원은 "부족하지만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또 신규 자문위원 4명에 대한 위촉패 수여식도 가졌다. 신규 자문위원은 양재창 고문(76세.포천향교 전교)과 김원찬 위원(40세,의정부한방병원장),윤순옥 위원(56세.포천의제21협의회장),이중희 위원(58세.포천시선거관리위원)등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동 정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식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6일 이동면 이동중학교 체육관(백운관) 개관식에 참석해 건립에 힘써준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백운관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체육에 기여토록 당부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회의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1일 경찰서 강당에서 과장, 지구대장 및 수사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취업사기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추석대비 소방안전대책 지시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6일 추석절 대비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소방순찰 및 출동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을 지시했다.

리·통장 수련대회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3일 포천시 리.통장 수련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관내 리.통장을 격려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시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8일 경기문화재단이 의정부예술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경기북부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방안모색에 대해 토의했다.

일동면 분회 방문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장은 일동면 분회를 방문해 회원이 100명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협소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회원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병업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1일 포천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의 단결과 화합분위기 조성과 시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사회 및 읍면회장단 모임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9일 구 군민회관 앞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이사, 읍·면회장, 여성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운동 및 향군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수관박사 초청강좌

윤순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장은 2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황수관박사를 초청 신바람강좌를 개최하고 참석한 내빈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국토대청결운동

김제현 포천모범운전자회장은 4일 오전 10시부터 모범운전자회원 10여명과 반월아트홀 사거리부터 용정4리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한국문화 배우기 행사

이문환 포천성·가족상담센터소장은 지난 3일 양주기술쎈터에서 Korea 21 한국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한미군의 한국문화 배우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동중 정일호

'이 시대 정말 의로운 교사'

익사 조난자 목숨 걸고 구조

3일 道교육청서 표창 받아

포천시 이동면 이동중학교(교장 김유옥) 정일호 교사(사진)가 '의로운 교사'로 지난 3일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정 교사는 지난 7월 24일 연천읍 동막골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옆에서 25세 가량 된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물 속에 뛰어들어 그를 구조했다.

나중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조난자는 일행 2명과 함께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에서 수심 3m정도의 호소로 뛰어내렸는데, 물살에 말려 빠져 나오지 못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당시 근처에는 30여명의 피서객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구하러 나서질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정 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

하지만 20여분간 막무가내로 붙들고 매달리는 조난자와 사투를 벌인 끝에 무사히 그를 구조해냈다.

특히 정 교사는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으나 이날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이 포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려 표창을 받게 돼 더욱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